

올 상반기 '옥탑방 고양이' 등 6편 무대에

개관 10돌 광주 '기분좋은극장' 연 4만명 관람·소외계층 초청도 '오 나의 귀신님'·'그 남자 그 여자' 16일부터 'S 다이어리' 공연



10주년을 맞는 상무지구 기분좋은극장에서 '에스(S) 다이어리'가 오는 16일부터 2월24일까지 상연된다.

광주지역 연극 전용 소극장 '기분좋은극장' (상무지구 우리은행 건물 7층)이 올해 개관 10돌을 맞았다.

지난 2009년 '씨어터그룹 유패한상상'으로 시작하고 2년 뒤 현재 이름으로 상호를 바꾼 '기분좋은극장'은 젊고 참신한 감각의 연극들을 무대에 올리며 연 4만명의 관객이 찾고 있다. 또 소외계층을 무료 관람 기회를 주는 데 힘쓰며 광주동부·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잇따라 '참좋은진로직업체험' 인증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1~2014년에는 광주 MBC와 '환상동화', '키스할까요' 등 화제작을 무대에 올리는 '연극이 좋다' 시리즈를 진행했다.

기분좋은극장은 서울 대학로 등에서 상연되며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 위주로 올 상반기 공연작 6편을 구성했다.

올 첫 간판을 내건 작품은 오는 16일부터 2월24일까지 상연되는 코미디 연극 '에스(S) 다이어리'이다. 김선아가 출연한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지난 2013년 초연한 뒤 전국에서 20만 명이 넘는 관객을 이뤘다. 5년 만에 광주에서 다시 막이 오르는 이 작품은 1시간 40분 동안 요즘 젊은 연인들이 겪을 법한 일들을 신랄하고 재치있게 묘사한다. 철부지 시절 만났던 첫사랑부터 알 건 다 아는 어른이 돼 만난 사랑까지 주인공 나진희의 연애사를 충정리했다. 풋풋한 설렘과 이별의 아픔까지 진솔하게 담아내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입장료 연출가가 특유의 희극적 요소를 가미해 새롭게 각색했다. 전석 3만5000원.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3시·6시, 일요일 오후 4시(월요일 휴무). 만 17세 이상 관람가.

다음 달부터 오는 5월까지의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 연극 2편이 이른 봄을 알린다. 차기 공연작 '오 나의 귀신님'은 달콤하지만 살벌한 로맨스를 펼친다. 작가를 꿈꾸는 재림 앞에 나타난 정체를 알 수 없는 한별에게는 알고 보니 귀신이 들어있다(2월 27일~3월31일).

10년 넘게 관객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그 남자 그 여자'는 4월5일부터 한달 동안 무대를 꾸민다. 설레는 사내 커플과 풋풋한 대학생 커플 이야기로 이 시대 청춘들의 사랑을 그렸다. 5월9일부터 한달 간 광주 관객을 만나는 '옥탑방 고양이'는 지난 2001년 김유리 작가가 연재한 인터넷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MBC 드라마로 제

작돼 40%대 시청률을 기록한 이 작품은 지난 2010년에는 연극으로도 만들어져 같은 해 '대한민국 국회대상' 올해의 연극 부문도 수상했다.

다음에는 잔잔한 감동을 주는 연극 '미리'로 숨을 고른다. 2003년 초연작으로, 사고를 당해 식물 인간이 된 유망한 외과의사의 영혼이 병실을 떠돌게 되면서 느끼는 감정을 서정적인 음악과 함께 그려낸다(6월14일~7월21일).

오는 7월25일~8월25일에는 '코믹 서스펜스'를 내세운 연극 '오백에 삼십'이 한여름 무더위를 날린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돼지빌라 원룸에서 일어난 의문의 살인이 일어나며 관객과 함께 사건추적에 나선다. 각 공연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문의 1600-6689.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동서양 연결 '이야기로 잇는 실크로드' 농경·유목민 풍습과 역사·신화 투영

아시아문화전당 그림책 5종 발간 한·중앙아시아 문화교류 기획 일환 중앙아시아 5개국 문화부에 전달



중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를 따라 동서양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된 지역이다.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정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서 투르크스탄, 북쪽 카자흐스탄 그리고 초원 일대를 말한다. 중앙아시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는 광대한 사막과 초원, 고지대의 산맥 등 웅장한 자연이 낳은 인문적 산물이다. 여기에는 농경 정착민과 초원 유목민들의 다양한 풍습과 역사, 신화와 전설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투영돼 있다.

실크로드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 5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문화전당)은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아시아의 이야기' 그림책 5종을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펴냈다.

이번 그림책은 한·중앙아시아 문화교류 국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중앙아시아 5개국의 작가들이 이야기를 쓰고, 한국의 그림 작가들이 그림을 그렸다. 한마디로 서사를 매개로 동서양을 연결하는 '이야기로 잇는 실크로드' 의미를 지닌다. 문화전당은 중앙아시아 5개국 문화부에 전달해 현지 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국내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유통하고 다문화 관련 기관에 유포할 예정이다.

첫 번째 책은 '교활한 꼬재이의 속임수'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산하 잡지사 '무호파이아플라' 편집장을 지낸 라자보프 딜소프가 글을 썼으며 영국 브라이튼 대학교에서 그림책을 공부한 안소민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

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섬을 빼앗으려는 이웃 나라 왕의 속임수에 빠져 결국 섬을 떠나야 하는 마을 사람들 이야기다. 작가는 우리에게 '고향 땅의 흙 한 줌은 금보다 귀하다'는 교훈을 남긴다.

두 번째 책은 카자흐스탄 출신 줄크바이 메이르잔의 '용감한 토끼'다. 그림은 한국안데르센 특별상을 수상한 남성훈 작가가 그렸다. 카자흐스탄의 드넓은 초원을 무대로 펼쳐지는 토끼의 용감한 모험담으로 내 안에 있는 힘과 용기,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세 번째 책 '이식콜 호수의 솔루우수우'는 키르기스스탄의 작가 알틴 카팔보바가 썼으며 그림은 2010년 제네바 어린이가 주는 최우수 그림책 상을 수상한 강혜숙 작가가 그렸다.

중앙아시아 가운데 위치한 키르기스스탄은 국토의 3분의 1이 만년설을 볼 수 있는 산으로 둘러



싸인 산악국가다. 높은 산들 사이에 크고 작은 호수가 1900여 개나 된다. 이들 호수 중 가장 큰 이식콜 호수는 투르크어로 '따뜻한 호수'를 뜻한다. 이번 그림책은 이식콜 호수의 가치와 자연의 소중함을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쓴 이야기다.

용감한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네 번째 책 '정의로운 소녀, 사드바르그'는 타지키스탄 사람들의 지혜를 다룬다. 깊은 산 속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자신의 소망을 이뤄가는 사드바르그의 이야기에 조점을 맞췄다. 불운한 환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소녀의 삶은 잔잔한 감동을 준다. 국제문화교류 전문가인 압두자보로프 압두카포르가 썼으며 김솔미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

마지막 그림책은 투르크메니스탄 작가 고투로브 아자트의 '진정한 친구'다. 책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인물들과 유사한 면이 있는데 당나귀처럼 고집이 세거나, 뱀처럼 교활하다. 그림을 그린 김지영 작가는 다양한 사물과 문양, 동물들을 풀라주 기법으로 아름다우면서도 흥미롭게 표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상일 교수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감독 위촉

한상일(63·사진) 동국대 교수가 오는 17일 신임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감독으로 위촉된다. 임기는 2년이다.

6년간 활동한 김광복 지휘자의 후임으로 결정된 한 교수는 1995~2003년 국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와 단장을 지내고 지난 2005년 성남시립국악단 초대 예술감독으로 부임해 2012년까지 재임했다. 추계예술대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에서 유교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고(故) 지영희(피리)·한범수(대금)·박병천(진도씻김굿) 등을 사사했다.

신임 수장은 청빙제를 통해 선정됐다. 청빙제는 예술단원들이 추천하는 3인과 시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해 감독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11월23일 청빙위원회를 구성, 총 12명을 추천한 뒤 3차례 검증을 거쳐 지난달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했으며 시장이 최종 결정했다. 시립국악관현악단은 오는 4월16일 120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5월30일~6월27일 등 상반기 3차례 공연을 열 예정이다. 54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시립국악관현악단

한해 공연 예산은 2억7000만원이다. "지난 1987년 전남대에 출강했고 국극단이었던 광주시립창극단을 위해 작곡활동을 했다"며 광주와의 인연을 설명한 한 신임 감독은 "남북 평화 분구에 발 맞춰 북녘의 소리를 접목한 무대를 차기작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시청 시장실에서 한 교수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019 지역상생 관광포럼' 16~17일 문화전당·나주 일대

관광생태계 개선을 위한 '2019 지역상생 관광포럼'이 오는 16~1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디 자인 호텔, 나주 일대에서 열린다.

첫날에는 강진겸(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진식(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양림동투어, 세션별 발제 및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발제·토론에는 임영신 이매진 피스 대표, 안은주 사단법인 제주올레 상임이사, 남길현 화성 작한여행 하루 사무국장 등이 참여한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광주 충효동, 소쇄원, 영산포, 천연염색박물관, 북악리 고분군 등 테마여행 10선 8권역에 해당하는 광주와 나주의 대표코스 투어가 이어진다.

포럼에 참여하려면 구글 폼(goo.gl/forms/pFUHofZBW2Gw0Ed63)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431-950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일보 뉴스 facebook 페이스북에서 보세요

Advertisement for '개업·성업 안내' (Opening/Business Announcement)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 Gwangju, such as '초대 화랑', '씨브웨이 광주충장로점', '교야전통마사지 전문점', '동양철학원', '금강버티컬', '그집고기', '고전방', '하얀나라 운동화세탁', '고흥나루터', '기담철학원', '교원빨간펜 남광주센터', '청학철학원', '으뜸공인중개사', '신신예술의집', '서울표구점', '루팡닭강정', '양지공인중개사', '박당화랑', '석당화랑', '토산철학원', '국수나무용봉점', and '해피니스요양병원'.